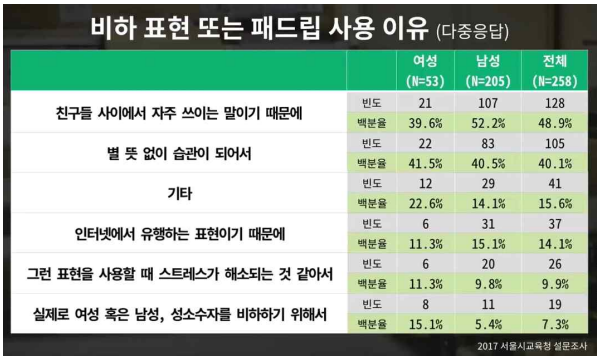
차별과 혐오 활동지



비하 표현 또는 패드립 사용 이유 (다중응답)

		여성 (N=53)	남성 (N=205)	전체 (N=258)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빈도	21	107	128
	백분율	39.6%	52.2%	48.9%
별 뜻 없이 습관이 되어서	빈도	22	83	105
	백분율	41.5%	40.5%	40.1%
기타	빈도	12	29	41
	백분율	22.6%	14.1%	15.6%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빈도	6	31	37
	백분율	11.3%	15.1%	14.1%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서	빈도	6	20	26
	백분율	11.3%	9.8%	9.9%
실제로 여성 혹은 남성, 성소수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빈도	8	11	19
	백분율	15.1%	5.4%	7.3%

2017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

말이 칼이 될 때

1. 동영상<세바시-교실 내 혐오 이대로 괜찮을까요>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2. 나와 친구들이 쓰는 일상적인 차별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래 빈 칸을 채우세요.

나	친구들

당신이 쓰는 말이 곧 당신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니다."라는 말을 했어. 어떤 존재, 즉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가 속한 세계라는 뜻이야. 만약 '시골뜨기'나 '짭새' 등의 단어를 쓰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의 정신이 머물고 있는 비이 지역과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애정이 있다면 그가 그 좁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마디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 이는 그 사람의 나이나 경험, 학식에 상관없는 것 같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해 둔 틀에서 조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구분 짓기'를 곧잘 하는 편이지.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귀한 것과 천한 것, 일등과 이등, 정상과 비정상 등으로 구분하는 것 말이야. 이 구분 짓기는 차별 그리고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기도 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 일란성 쌍둥이라도 생김새가 어딘가 조금씩 다 다르지. 이렇게 세상에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어떤 기준 하나를 정해 두고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마치 뭔가 모자란 것처럼 구분 짓기를 하거나 심하게는 비하, 차별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지. 물론 대학과 학번을 묻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하게 되는 말도 있고 말이야. 출처:「왜요, 그말이 어때서요」, 김청연, 동녘
3.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